

“Mission”은 “선교”이자 동시에
우리 한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CAMPUS MISSION



2016

캠퍼스 미션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학원복음화와 대학생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일 선교 책자인 『캠퍼스 미션』의 첫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세월 한남대학교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서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학생들을 훈련시켜 이 시대를 위해 쓰임 받는 인재들로 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믿음과 구원, 진리 보다는 취업과 돈 버는 것에 몰두해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간직한 채 주님의 제자들로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감사와 함께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Mission”은 “선교”이자 동시에 우리 한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2016년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대학생들의 생각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냄과 동시에

학원 복음화를 위한 신선한 전략들이 『캠퍼스 미션』에 담겨져서 한남대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선교에 뜻있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널리 쓰일 수 있는 귀한 자료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선교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교목실 식구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학원복음화를 위한 한남의 정신과 열정이 담긴 이번 창간호를 필두로 새로운 캠퍼스 선교의 바람이 이 땅 위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8월

한남대학교 이사장 이락원

지난 60년간 우리 한남대학교는 진리, 자유, 봉사의 기독교 정신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학원 선교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캠퍼스 미션』을 우리 대학이 창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위기와 함께 기독교 대학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남대학교가 기독교 대학다운 기독교 대학이 될 때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적 가치는 복음일 것입니다.

『캠퍼스 미션』을 통해 캠퍼스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나누어지고, 요즘 청년들의 생각과 가치관, 관심사가 꾸밈없이 담겨서 우리가 꿈꾸는 캠퍼스 복음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캠퍼스 선교의 정

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하는 캠퍼스 선교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과 대안들이 본 창간호를 필두로 계속해서 풍성히 담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캠퍼스 미션』의 편집과 출판을 위해 수고한 교목실장님과 선교훈련팀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캠퍼스 미션』을 통해 학원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캠퍼스 안과 밖에 유익한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한남대학교 총장 이덕훈

축사 이락원 이사장

축사 이덕훈 총장

1. 권두언

천사무엘 교목실장

2. 대학생 대답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3. 캠퍼스 선교동아리 탐방: 한남대 IVF

나의 캠퍼스 선교 - 최보연 간사

나의 동아리 활동 - 박성현 학생

4. 대학생 성서교육 현장

기독교대학에서 성경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최영근 교수

'현대인과 성서'를 가르치며 - 허윤기 목사

'현대인과 성서'를 수강하고 - 김혜린 학생

Show me the Mission, 램퍼 비와이(BewhY)와 캠퍼스 선교 - 박광영 목사

'현대인과 성서'로부터 배운 것들 - 박준 학생

5. 캠퍼스 소그룹 탐방: 생활관 인성교육

소그룹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 이어진 전임교목

인성교육에 참여하고 - 표성민 학생

6. 대학생 해외봉사 체험기

청년자원봉사단(YAV)으로 미국에서 지낸 1년 - 조수휘 학생

7. 캠퍼스 영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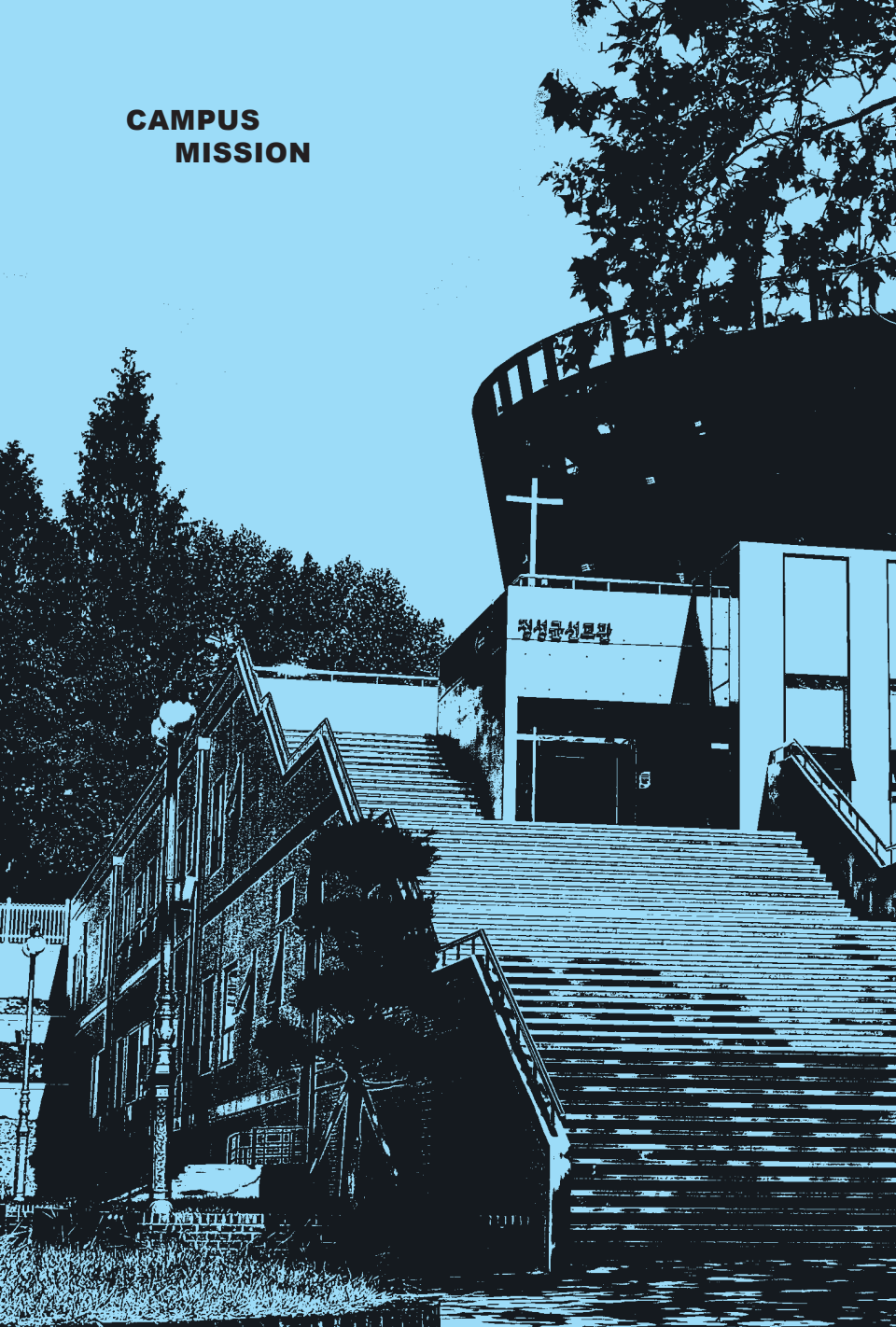
데올리션, 견고한 껍데기를 부수고 - 임세은 영화 칼럼니스트

8. CCM 토크

Acoustic Machine

부록: 인성교육 자료

CAMPUS MISSION



권두언

천사무엘(한남대 교목실장)

2016학년도 1학기 우리 대학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학생은 32%입니다. 이 중 개신교가 26%이고 천주교가 6%입니다. 10년 전에는 40% 정도였지만, 8%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생 중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나 선교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교목실에서도 채플과 성경 과목 등을 통해 선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축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선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해외 선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 한남대학교 교목실에서는 '캠퍼스 미션'이라는 본 잡지를 창간하여 발행합니다.

「캠퍼스 미션」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대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알아야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전도하러 학교를 찾아오시는 교회 직분자들이 열정은 있지만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그분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하여 캠퍼스 선교에 방해가 됩니다.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만 생각하면서 학생들을 대하다가 부작용만 낳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들을 낳고 기른 부모들도 이해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안 다니는지, 왜 교회를 멀리하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잡지는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지시 형태의 글이나 설교보다는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서 교회와 사역자들이 대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교회나 선교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은 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본 잡지의 내용이 채워지지만 다른 대학의 상황도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잡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캠퍼스 미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많은 대학생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CAMPUS MISSION 2

대학생 대담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대담자

천사무엘(한남대 교목실장), 이용희(도시부동산학과 15),
남승희(영어교육학과 14), 이하은(예술문화학과 14),
제소현(교육학과 15), 박동욱(법학과 11)

일시

2016년 7월 5일 오전 11시

장소

정성균선교관 북카페

교회란 어떤 곳인가?

천 안녕하세요. 방학이라 다들 바쁠 텐데, 대담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에 대한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려고 해요. 요즘 20대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고,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잘 모르고, 알긴 알아도 막연해요.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다가간다고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힘들어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20대인 여러분의 솔직



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 볼까요?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가요? 공감되는 것이 많아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용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의 경우는 공감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천 왜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 목사님들 시대 때의 개그 코드를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집사님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 또래 아이들은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아재개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천 처음부터 너무 센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돌직구를 날려줘요. 돌려서 이야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교회 기성세대가 변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솔직히 말해서 감동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좋은 말씀을 하시는 구나' 하는 정도예요. 마음속에 크게 와 닿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저는 정기적으로 교회 다닌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듣는 말씀마다 너무 좋았어요. 설교 중에 듣다가 울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혼자서 울고, 막 웃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큰 세대 차이를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듣는 내용마다 너무 좋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 저는 청년부 예배는 괜찮은데 대예배 같은 경우에는 좀 길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집중하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닿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대예배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천 청년부는 가고 싶고?

하 네! 뭔가 말씀하실 때 개그를 섞어서 하셔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남 저는 반대예요. 제 경우는 대예배 때 깨닫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청년부 목사님 설교 할 때는 ‘아 뭔가 뻘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천 두 사람이 반대 견해를 보여주는 게 참 흥미롭네요.



천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나 됐어요?

남 저는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요.

천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나요?

남 네! 한 번씩 가본 적은 있는데 정기적으로 다닌 적은 없어요.



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다니다가 중단했구요. 작년 4월부터 다시 다녔어요.

제 저도 작년 4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완전 산골에 살아서 놀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요구르트 준다고 하면서 성경만화를 보여줬는데 그 만화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대학교 언니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고 해서 거기가 놀이터인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잠깐 다녔는데 놀이터라는 느낌으로 갔었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니게 된 것은 대학교에 들어온 후 작년 4월 초부터예요.

박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천 그 전에는 안 다녔나요?

박 어릴 때 과자 준다고 해서 잠깐 다니고 그랬습니다.

용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천 제대로 다녔다는 건 어떤 의미지요?



용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가져다 준 변화가 있다면?

천 교회에 다니고 나서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제 제 경우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전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고 선교단체 활동도 같이 하면서, 아침 QT 등 정기적인 게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가장 많이 든 생각이 '그동안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 전까지는 뭐랄까, 무의미한 일상? 그냥 보내는 일상?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아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다른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또래 친구들을 보면 '조금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래 친구들이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했구요. 주변 사람들도 뭔가 도와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천 선교단체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 설문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천 설문지? 그러면 그 설문지를 나눠준 후에는?

제 저희가 작성을 하면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와요.

천 그 설문지는 어떤 내용이지요?



제 대학생활 중 관심사는 무엇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 등등이요.

천 그 설문지를 받았을 때 작성하고 싶었어요?

제 네! 그때는 관심이 있었어요. 신입생 행정 오리엔테이션 때였는데요. 학과 단체로 설문지를 돌렸어요. 싫어하는 친구들은 번호를 다르게 적어서 내던가, 관심이 없다고 백지로 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설문에 응했지만, 설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진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 저는 선교단체나 교회가 궁금해서 가게 되었어요.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자신은 힘들고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였거든요. 친한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가보게 되었어요.

천 다녀보니까 어때요? 다니기 전과 후가 어떤 것 같아요?

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중의 힘든 학교생활을 하고 나서 주말에 모여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니까 힐링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 저는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옛날에는 속 좁게 생각했던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진 거 같아요. 지금 직면한 문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는 시야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항상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눈앞의 문제에 매달렸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진 것 같아요.

용 저는 제 삶이 기뻐진 것 같아요.

천 기쁘게 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어요?

용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별다른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변한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삶이 기뻐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박 저는 교회를 다녔다가 중간에 안 다니다가 다시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다닐 때 하고 다닐 때의 차이를 생각해 봤는데 안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망가지거나 타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제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면서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안 다닐 때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았다면, 다니면서



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조금씩 길을 걸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천 그 방향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박 신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제 삶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 그 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직업? 아니면 삶의 태도?

박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향을 한 번에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전부를 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천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어요?

남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들끼리만 친한 단체, 좀 폐쇄적인 단체라고 생각했어요.



천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남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굳이 안 가고 싶었어요.

천 뭔가 벽이 있다, 그런 느낌인가요?

남 네.

천 만약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반겨줄까 생각해봤어요?

남 친구를 따라서 갔었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소속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반겨주긴 해도 겉으로만 그런 것이지 속으로는 아닐 것 같고 그랬어요.

하 저는 겉으로만 착한 척한다고 생각했어요. 강요도 너무 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별로 좋은 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천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 네! 제가 안 믿었을 때 주변 친구들도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친구들도 그냥 기독교 얘기하면 욕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뭔가 벽이 있다? 그런 느낌인가요?

친구를 따라서 갔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소속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반년거진 해도 걸음으로
만 그런 거지 속으로는 아닐 것 같고 그랬어요.

교수님들께서 신앙으로 가지고 계시어서 수업시간에
잠깐씩 나오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어기
가 기독교대학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기분이 조금
큰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삶이 기뻐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집단인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자기 교회만 나오
라고 할까, 좀 무섭고 집착하는 단체라고 생각
했었어요.

간혹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니는데 무슨 문제라
도 있냐 이런 식으로 대처했던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가끔 주말에 친구들과끼리 놀자
고 했을 때 교회를 가야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빼고
친구들처럼 종교문제 때문에 트러블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천 욕을 한다면 어떤 점을 욕을 한다는 거죠? 본인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천 “우리 교회 와라, 믿어라.” 이런 식의 강요를 말하는 건가요?

하 네.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된 것도 ‘왜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지’ 그런 것에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무섭고 집착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항상 자기네 교회를 알린다고 책자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도를 전단지 나눠주듯이 하거나 아니면 붙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는데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믿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식으로 강압적인 자세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나고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또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집착하는 거 같았어요. 예전에 친구랑 식당에 갔었는데 그 친구는 크리스천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얘기해주면서 정말 좋았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식당 아주머니가 듣더니 그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저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분이 이단 교리를 믿으시는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만, 그 당시에는 이단이나 일반 교회를 구분 못하는 상태여서 그 모습을 보고 집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천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이단인지 일반 교회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네요?

제 네, 맞아요. 다 같은 집단인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자기 교회만 나오라고 할까, 좀 무섭고 집착하는 단체라고 생각했었어요.

박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들을 보면서 정신이 좀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고요. 또 금전적인 문제, 현금이나 십일조 등이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용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큰 생각이 없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천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용 친구들이 제가 원래 믿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천 이유를 보낸다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용 간혹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냐하는 식으로 대처했던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가끔 주말에 친구들끼리 놀자고 했을 때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빼고는 친구들이랑 종교문제 때문에 트러블은 없던 것 같아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느꼈던 순간은?

천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깐 너무 좋고 훌륭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한남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남 교수님들께서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수업 시간에 잠깐씩 나오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여기가 기독교 대학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 교수님들이 수업시간에 조금씩 그렇게 말씀하실 때 좋아 보여요?

남 그런 교수님들은 대체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이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교수님들의 종교적 코멘트를 어떻게 생각해요?



남 그 교수님을 좋아하면 상관없어하는데 그 교수님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교수님이 그런 내용을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 더 반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친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관계가 좋아야지 신앙적 조언도 좋게 받아들일거군요.

하 저는 우리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 대학인지 잘 몰랐었어요.

제 저는 처음에는 기독교 대학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붙고 나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선교단체도 들어가고 교회도 다니게 되면서 대학 내에 월요찬양집회도 참석하게 되고, 기독교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또 '한남 Love Festival'을 할 때 '아! 여기가 기독교 대학이구나, 왜 내가 몰랐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 Love Festival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

제 저는 제 학과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참여했었는데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월요찬양집회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LF는 안 믿는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



할 수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용 저는 채플이랑 학교 건물에 있는 십자가나 건물 이름이 선교사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기독교 대학이구나 생각했어요.

박 저도 채플하고 '현대인과 성서'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기독교학교구나 생각했어요.

천 그러면, 입학할 때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학교보다 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안 해보았나요?

제 저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냥 '수업에만 기독교적인 뭐가 들어가겠지?'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박 저는 들어올 때 몰랐어요.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천 그러면 학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대학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한남대가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랬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을까요?

용 학생들의 50% 이상이 기독교를 믿어야 여기가 기독교학교라고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천 현재 개신교가 26%, 천주교가 6%, 10명 중에 3, 4명이 기독교인이
에요. 불교는 약 7% 정도예요. 한남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 크리스
천 비율이 높은 거죠.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전도 방식은?

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전도를 받아서 신앙
을 갖게 된 거잖아요? 본인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
면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나요?

남 저는 관계전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데 대학교에 와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차차 가까워진
후에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니깐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천 교리를 주입하는 게 아닌 서로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네요?

제 저도 관계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타
인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사랑과 관심을 주
면서 관계를 가지면 전도하는 사람도 좀 더 편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듣는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교회 다니라고 하는 노방전도는 어때요?

남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천 노방전도의 두려움, 기분 나쁨, 거절하고 난 후의 찝찝함 등이 있
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받아들이는 어렵지 않을까
요?

박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천 그렇게 노방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하 저는 오히려 붙잡아서 말을 거는 것보다는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붙잡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시하
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도지를 나눠주기만 하면 집에 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 그걸 읽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읽고 끝일 것 같아요?

제 읽고 끝일 것 같아요.



남 연락처를 주면 연락해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전도는 받을 사람은 받는데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전도는 크리스천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동경하게 되잖아요? 동경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 알게 되면 교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 저는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이 전도할 때 더욱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하면 피하게 되는데 또래 애들이니깐 편한 느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천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을 크리스천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박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박 학과 신앙공동체가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학과 안에서 크리스천이 아닌 학생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도하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설교도 듣



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천 교수님들이 기독교를 소개하고 교회에 나가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박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이라도 더 되새기고 할 것 같아요.

천 존경스러운 교수님이 말씀하면 더 잘 따를 것 같고 그래요?

남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현대인과 성서' 시간에도 목사님이 와서 강의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주셨어요. 학생들이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엄청 부정적이니까 조금만 말씀을 잘못하시면 학생들이 안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최대한 강압적이지 않게 다가가시려는 그런 방식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라고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천 '현대인과 성서'를 들으면 비기독교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 저도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인과 성서'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미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좋게 들었는데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어렵게 느낀 것 같아요.

용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박 아는 내용이라서 편하게 들었다 하는 정도였어요.

천 교회와 전도, 그리고 캠퍼스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모두들 방학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에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고정리: 이어진(한남대 전임교목)



CAMPUS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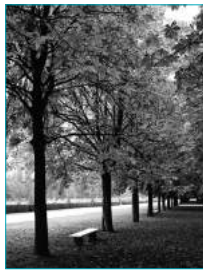
Inter Varsity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나의 캠퍼스 선교

최보연(IVF 간사)

IVF (Inter-Varsity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는 1877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조직되어 올해로 만 63년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IVF 사역을 통해 배출된 약 15,000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고 있으며, 오늘도 각 캠퍼스에서 수천의 대학생들이 복음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남대에서 IVF 간사로 섬기는 동안 학생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마음 아파했던 많은 일이 있었다. 또한 IVF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소회도 있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IVF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피려 한다. 그리고 각 사역을 진행하면서 간사로서 갖게 되었던 개인적인 생각도 짧게 담으려 한다.



| 세움의 계절 |

새해가 시작되면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와 “지부 세우기”로 바빠진다. LTC와 같은 경우 1학년 친구들은 1주일, 2학년 친구들은 2주일간의 훈련 수련회를 통해 IVF 운동의 스피릿과 운동론, 그리고 리더로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한다. 특별히 이 시간은 대전과 청주, 공주, 세종에 소재를 둔 13개 대학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벳 운동에 대해서도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동일한 정신이 각각의 캠퍼스의 상황과 사람들이라는 다양한 그릇에 어떻게 담기어지는지를 볼 때면 학생 운동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늠하게 되는 때다. 더불어 이 시간을 통해 1, 2학년을 지나며 캠퍼스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리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대학생들에게 자기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삶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삶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누구에게나 도전이 되는 역할이다. 리더로 섬기게 될 경우 삶의 에너지(시

간(체력/일정)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모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진지한 고민에 임하기도 한다. 그래서 LTC는 어쩌면 이들에게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와 같은 처지가 되는 계기가 된다. 캠퍼스 현실이 암만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꾸준히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간사로서 느끼는 전율이고 특권이 될 때가 많다. 그리고 이 LTC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된다.

이런 훈련 수련회가 지나고 나면 지부별로 흩어져서 리더들을 중심으로 캠퍼스 단위의 운동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고 만들어간다.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한 학기를 어떻게 운동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학생 리더십 그룹의 팀 빌딩이 이루어진다. 간사는 이 시기에 학생 리더십 그룹을 코칭하며 학생들의 운동이 더 잘 되어가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나간다. 그들의 창의성이 가장 잘 펼쳐지고 모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들은 놓치지 않도록 코칭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역할이다.

| 신입생을 위한 사역 |

모든 선교단체에게 그러하듯 IVF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신입생 사역이다. 한국의 많은 도시 교회들이 60-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취했던 친절한 섬김이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듯이 누군가에게 낯선 곳으로의 이동은 새로운 공동체로 소속되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매우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중고등부 시절 교회 문화에 친근하게 접해있던 친구들이 대학에 오면서 기독교 이탈률이 높아지는 시기도 이때이지 않은가. 물리적 이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주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로의 초청과 환대를 통해 함께함의 기쁨을 선물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갈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문제는 선배들의 환대와 섬김에 대해 신입생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3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쁠지도 모르는 대학 신입생들의 마음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리더들의 수고가 때때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간사인 나보다 한 사람을 더 끈질기게 사랑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어쩌면 열매는 신입생들이 아니라 생전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을 위해 이렇게 인내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이 수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시고, 그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나눠주신다.

| 축제를 넘어 말씀으로 |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나고 축제의 시간이 이어진다. 캠퍼스의

많은 학생들은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달리고 있다. 누군가는 미래를 위한 스펙 쌓기를 하고,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논다. 이때 학생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왜 캠퍼스에서 이렇게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면서 타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만만찮은 학업의 양, 섬기는 대로 맺히지 않는 것 같은 열매들, 그래서 조금해지는 데다가 생각보다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이 어우러져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온갖 질문들 앞에 마주한 학생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간사인 나 또한 이 학생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해진다.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을 토해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낸다.

이번 5월에 우리는 3일간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다. 이 시간을 통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임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는 중이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빚어 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했었다. 이 고비를 넘기며 학생들은 더 넓은 섬김으로 나아간다. 축제 때에는 이 섬김의 모양으로 캠퍼스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일을 벌인다. 학생들이 장사에 참여하고, 그 수입으로 청소 노동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선물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다. 어머니도 기쁘고, 나누는 우리도 기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수련회 |

일 년 중 학생들에게 가장 축제와 같은 시기는 여름 수련회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공동체와 함께 하는 축제! 그야말로 정말 신나는 시간이다. 18-19세기 서구 학생 운동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케직 사경회”의 전통을 닮은 여름 수련회는 5박 6일간 열린다. 200여 년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종종 나는 놀라곤 한다.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15만 원가량과 계절학기나 아르바이트 등을 포기하면서 가야 하는 1주일간의 일정이지만 여전히 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발견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후기 기독교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기독교 상황 상,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교회 문화에 친숙하게 자라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장이 된다. 공동체를 경험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 가을, 우리는 훈련한다 |

가을은 훈련하기 좋은 계절이다. 1학기가 지나면서 복음의 이야

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공동체의 손님처럼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몸을 이루어 자라가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훈련이다. 2학년이 된 친구들은 3학년이 되어 리더가 될 준비를 하기 위해 특별 훈련을 한다. 내가 생각할 때 IVF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세상을 보는 관점(세계관)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진리가 이 세상을 설명해낼 수 있고,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 설득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는 단순히 기독교 문화 안에서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문화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나라의 왕이심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과업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임을 알게 되길 원하며 학생들을 훈련한다. 세계관, 성경 연구, 그리고 리더로서의 삶에 대해서 1학기동안 2년차 친구들은 알게 된다.

나도 이 시기를 지나며 복음이 과연 만유에게 기쁜 소식인지가 궁금했고, 그런 질문을 하는 나를 지지해주는 간사님 덕분에 진리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캠퍼스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인간 누구나 간절히 듣고 싶은 소리, 우리가 가치 있고 아름다워서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 계시다는 아주 놀라운 소리. 여전히 캠퍼스에는 그 소리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가 이 세대에 잘 들릴 수 있는 음역대를 설정할 수 있는 지혜도 정말 필요하다. 그간에 들었던 음악은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가사로 들려졌던 것도 같다. 그래서 같이 춤추기에는 뭔가 꺾끄러웠던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일하시기 쉽고 그 마음에 걸맞은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싶다.

| IVF의 핵심, 소그룹 운동 |

사실 IVF 운동의 가장 핵심 전략은 소그룹 운동이다. 외부의 시선에서는 IVF가 지성이 뛰어나고, 성경 연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가장 중요한 운동의 모양은 소그룹이다. 소그룹 안에서 담기는 가치는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보며 서로에게 배우는 것을 통해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다. 12명가량의 소그룹이 서로에게 성경적 공동체가 되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예배와 교제, 나눔과 학습의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되는 것이다. 사실 3월부터 이 과정을 위해 리더를 세우고, 또 소그룹 안에서 사람이 모이지고 자라가는 지를 지켜본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무엇이 남았는지를 같이 살펴본다. 몇 명의 사람이 공동체에 소속됐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은 소그룹 공동체안의 관계가 역동적이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라났는가 하는 것이다. 1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그리스도와 맞추어 걸었는가에 대한 질문들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4년, 5년간 섬긴 지체들이 졸업하시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때에는 졸업생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의 예배를 통해 후배들에게 자신들도 저 선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들을 일으키는 예배가 된다. 간사로서 이 시간은 떠나보내는 시기다. 새싹 같은 신입생 시기를 보내고 어느덧 나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됐구나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세상으로, 사회로 떠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축복한다. 지금의 이 훈련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살아내고자 했던 삶의 방식을 잊지 않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그들이 발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나의 동아리 활동

박성현(국어교육과 13학번)

설레는 마음으로 IVF 향했던 겨울의 시절이 어느새 3년이 지나간다. 지금은 IVF의 3년 차 멤버이며 리더로서는 2년 차가 되어간다.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선교단체는 커녕 기독교 자체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다. IVF에 함께하던 시간 중에도 약 1년 정도는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교회조차 제대로 다니지 않았었고 쉽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절들이 있었다. 지금 당장 IVF를 떠날 사람도 아니고 IVF와 소원해진 사람도 아니라 IVF를 회고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IVF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고 분명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IVF를 만나다

처음 IVF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로 엉뚱한 계기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 나는 선교단체에 들어갈 의지도 없었고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었다. 심지어 나는 교회조차도 다니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가 이 단체에 들어간 계기는 당시 IVF에 소속 중이었던 선배를 따라가서 본 IVF의 동아리 방이 너무 멋졌기 때문이었다. 상당히 엉뚱한 이유이지만, 실은 이 선배의 동아리기도 하니 칭찬할 명목으로 찾은 가벼운 말이었는데 정말 우습게도, 이 말로 인해 나는 이 단체에 소속하게 되었다. 처음 IVF의 인상은 놀라웠다. 매일 아침 8시에 동아리 방에 나와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IVF, 또한 캠퍼스를 중보하는 모습이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범죄한 목회자들이나 길거리에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저주나 다름없는 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주는 인상과 대비되었다. 그 시간을 계기로 나는 IVF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멤버-세워지는 과정

이렇게 첫인상은 좋았지만, 사실 별다른 계획 없이 시작한 선교단체에서의 나의 시간은 조금 험난했다. 당장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모임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통학생인 나로서는 귀가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부모님께 일종의 일탈 행위로 비쳤다. 그리고 모임 시간마다 식사교제를 함께했어야만 했기에 자연스럽게 적어도 한 주에 두 번은 저녁값을 투자해야만 했다. 학과 조별 모임 등의 여러 행사와 개인적인 일정과 IVF 모임이 부딪혔을 때 우선순위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나는 세워졌다. 부모님에게는 나름대로 IVF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야만 했고 덕분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이는 후에 선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공동체에서 지원을 해주었기에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학과 조별 모임으로 인해 IVF 모임에 불참했을 때 리더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권면했다. 덕

분에 나는 2014년 겨울 수련회인 LTC를 마치고 리더 인터뷰를 통해서 리더로 세워졌다.

리더-거절감과의 대면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 나는 첫해에 신입생 사역을 맡게 되었다. 행정 OT 때만 해도 캠퍼스 지도를 나누어주고 설문조사도 하고 IVF 포스터를 붙이면서 신입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품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역할은 상당한 거절감과 마주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려는 행동 자체가 이 사회에서 허용받기 어렵고 특히 어떠한 행동을 요구했을 때 드는 거부감이 커서 신입생에게 연락을 하면서 많은 거절감과 마주해야만 했고 이는 나를 매우 괴롭게 만들었다. 나 역시 처음에도 IVF 자체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오했던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는 신입생에게서만 느꼈던 것은 아니었다. 리더였기에 정말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동조차도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저 교제를 위해 연락을 해도 리더이기에 멤버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고, 리더로서 이전과 달리 행동해야만 하다 보니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멤버 시절보다 다른 멤버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거절의 문제는 리더 간에서도 나타났는데 신입으로 세워진 리더들과 기존의 리더들 간의 가치관 대립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욱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대면하기 위해 노력했다. 덕분에 보다 더 진솔하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는 보다 더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게 하였다. 자연스럽게 신입생들은 IVF 안에서 동역자로서 함께하게 되었고 멤버들과 더욱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리더들과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에 서로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더더욱 똘똘 뭉치게

되었고 보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돌아보며

이렇게 나는 3년을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 그리고 함께했기에 겪은 상처들을 바라본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꽤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했었고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겪었기 때문에 성격도 꽤나 시니컬해졌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는 나의 상급이기도 하며 영광이기도 하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모습으로,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는 분명 이전의 나였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공동체였기에 아팠었지만, 공동체였기에 사랑하려고 했다. 이는 나를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으로 변모시켰고, 거절감이 주는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보다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 아직까지 IVF에서 섬길 날도 많고 아직 스스로 변해야 할 부분들도 많은지라 조금 교만한 발언이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IVF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거절과 오해와 다툼도 많은 서투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고 서투른 그들이 서로 사랑하려는 모습이 더욱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 내가 섬기고 함께하는 이곳은 그런 이야기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다.”

“기독교 대학에서 성경과목을

— 한남대학교 “현대인과 성서” 교과목 운영의 방향

기독교 대학과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선입관 가운데 하나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기독교 교과목은 형식적이고, 지루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남대학교 역시 기독교 필수교과목인 ‘현대인과 성서’가 재미없고, 인기 없고,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언젠가 학교에서 중요 보직을 담당하던 어떤 교수는 인기 없고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을 굳이 필수로 해서 학생들에게 억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선택과목으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게 선택과목으로 하면 인기 없는 과목을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최영근 교수
(한남대 교목/기독교학과 교수)

수강하려고 할까?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 대학이 기대하는 수업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어느 순간에 기독교 필수 교과목은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기독교 대학이 어떤 면에서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는 더욱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과목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기존의 교과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은 미봉책이고 회피이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독교 교과목이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형성하고,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강한 기독교적 인성을 길러낼 수 있다면, 그 목적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크리스천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세상과 소통하는 심화된 신앙을 형성하고, 크리스천이 아닌 학생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 기독교 교과목이 학생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수업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거부감과 반발이 심할 것이고, 이외는 반대로 신학과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어렵고 의미 없고 지루한 수업으로 외면당할 것이다. 결국 기독교 교과목은 학생 개개인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에 기반하는 이웃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책임적 자세를 갖도록 인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 한남대학교 '현대인과 성서' 교과목은 지난 5년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교양필수과목 중에 강의평가가 가장 우수한 교과목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로부터 그 가치와 필요를 인정받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과목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과 성서' 교과목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강조하는 중요한 원리들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수의 자질이다.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다양한 학문과의 소통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면서, 학생들 개개인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질을, 전문성, 인성, 영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외의 명문대학 신학 관련 박사학위가 인성과 영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또한 영성이 깊다고 하더라도 학생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심지어 학생들 개개인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또한 인성과 영성이 있어도 신학적 전문성이 없다면 교과목으로서의 수업의 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골고루 갖춘 강사진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남대학교는 그러한 자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균형을 갖춘 강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강사선정과 강의배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또한 매학기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강사들의 수업 노하우와 경험과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의 지혜와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새로운 수업자료와 수업방법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 효율적인 수업방식이 올해에도 효과적이라는 법은 없다. 학생들의 눈높이와 요구, 변화된 상황에 맞게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

둘째는 수업의 내용이다. 기독교의 교리를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면, 어렵고 흥미도 없거니와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다. 오늘의 문제(콘텍스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성서의 가르침과 교훈(텍스트)을 다루고, 그 의미를 오늘의 삶에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SNS의 가상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소통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문화 간 번역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헬라이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어 성경을 제시하면 이해할 수 없듯이, 문화의 코드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어려운 언어와 개념으로 된 지식을 주입하면서 이해를 기대하기란 무리일 것이다. 영상, 이미지, 음악, 공연, SNS, 그 외에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방식을 수업에 적용시켜서 성서의 메시지와 현대인의 삶을 연결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성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와 이야기가 될 때, 학생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의실에서 확인하고 있다.

셋째로, 수업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추구하는 쌍방향 소통의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조별 토론과 학생들의 발표와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스스로 생각해보고, 더불어 사고하고, 문제와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감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보다 조별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유형의 수업에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정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며 좀 더 나은 대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노력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과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도록 자극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수와 학생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넷째로, 수업의 다각화가 중요하다. 기독교 교과목의 목적은 지

식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적 교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교육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중심의 이론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양한 활동을 수업에 접목시킴으로써 기독교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인과 성서' 교과목은 2015년 2학기에 '인성 플러스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기존의 수업에 인성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으로, 교수와 일대일/조별 만남과 상담, 기독교 연극 및 영화관람, 비블리오 드라마와 역할극, 조별 현장실습, 교내 기독교 문화유산 순례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업과 병행하였다. 갑갑한 강의실과 정형화된 수업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통해 교육의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간에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들 상호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수업에 활력소가 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활발한 소그룹 활동과 상호소통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독교 교과목은 소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지식전달보다 교수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 상호 간에 친밀한 관계 형성과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강 인원 40명 내외의 소규모 강좌로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과목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채플의 연장선에서 대규모 학생들을 한꺼번에 교육하고 끝내는 수업으로는 과목의 의미와 목적을 살리기 어렵다. 한남대학교의 경우 '현대인과 성서' 교과목은 소규모 강좌(한 분반 당 40명 내외)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업의 효율과 역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기독교 교과목은 학교 당국의 의지와 정책적 배려, 교목실과 교과목 운영 주체의 일관되고 철저한 수업의 질 관리, 실력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갖춘 교수진의 확보, 담당교수들의 철저한 수업 준비와 학생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지식 전달 중심의 일방적 수업이 아닌 상호소통적 수업의 연구 개발, 다양한 활동을 접목한 효율적 수업 운용이 한데 어우러질 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생존경쟁에 내몰려 정체성과 비전을 상실하고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 대학들이 창학 정신과 교육 목적을 구현하는 기독교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차별성 있는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현대인과 성서’를 가르치며

■ 허윤기(한남대 강사)

한남대학교 황금어장의 멋진 그물, “현대인과 성서”

한남대학교는 기독교의 진리 위에 세워진 학교로 ‘대학 과정의 교육’의 ‘중심 원리’를 ‘기독교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인과 성서’는 한남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왔던 교양필수 3학점 과목이다. 이 과목의 교재는 『현대인과 성서』로 종교철학, 구약학, 신약학, 윤리학, 역사신학, 그리고 리더십과 한남대학교 창학 정신이 한 권에 녹아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재과목으로 유지된 ‘현대인과 성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입학할 때에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과목을 통해 성서의 메시지를 한 번씩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군대를 복음의 황금어장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캠퍼스 역시 복음의 황금어장이 될 수 없을까? 이렇듯 캠퍼스가 복음의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한남대학교의 ‘현대인과 성서’ 과목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멋진 그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과 성서’ 과목은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 ‘캠퍼스 사역의 출발점이요 결정체’로 볼 수 있다.

캠퍼스 사역의 최전방, “현대인과 성서”

매 학기 초 강의를 위해 ‘현대인과 성서’ 강의실에 들어가면 묘한 적막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이 교양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데도 들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담감은 학기 말이 되면 상당 부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현대인과 성서’ 과목이 한남대학교에서 개설된 강의에 대한 평가 중 매학기 상위권의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와 성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을 증대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양과목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인과 성서’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과목은 아니었다. 과목 자체를

개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학교와 헌신과 열정으로 강의하는 강사들에 의해 지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과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가령 10여 년 전에는 한 분반에 60명이 넘는 학생을 배분하여 수업을 하던 것을 현재는 30명 남짓으로 제한하여 소그룹 형식의 강의로 변경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강의의 질과 평가가 향상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이 과목의 중요성을 알고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들의 열정과 헌신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목을 맡은 강사들은 대부분 목회자이거나 신학을 공부한 박사(Ph. D.) 수료 이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이 과목을 강의하는 분들이 단순하게 시간 강의로 생각하지 않고 캠퍼스 복음화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여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복음'

'현대인과 성서가 강의 평가를 좋게 받는 이유가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목은 강의 자체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서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신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을 중점적으로 채워주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이 과목의 평가가 좋은 것이 학생들의 인기에 편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뒷발을 가꾸는 귀한 과목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과 성서' 과목의 교재인 『현대인과 성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현대인과 성서』 교재는 초반부터 종교에 대한 주제를 통해 종교 다원 사회와 기독교를 소개한다. 그리고 바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전반에 대해 교재 분량의 반을 할애한다. 이렇게 성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나면 “글로벌 이슈와 기독교 윤리”를 통해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봉착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렇게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다룬 후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통해 기독교가 근대한국사에서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교재의 마지막 부분인 “주체적 한남인, 그리고 한남대학교의 정신”을 통해 자신

대학에서 읽을수없는 교수님이 허은기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을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수업을 들었다기 보다는 사람이 살아갈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었던것 같습니다 저희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쉽게 접할수없는 연극도 볼수있는 기회를 주신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신것도 기억에 많이 남을것같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지만 지나가다 학교안에서 꼭 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내일 시험은 최선을 다할게요..ㅎㅎ

한참 생각하다가 지금에서야 연락드리네요 아무래도 기독교학교라는것때문에 편견이 조금 있었습디다. 그런데 교수님 수업 덕분에 정말 생각없이바뀐것같습니다. 제가 많이모자라서 표현하기가 서툽니다.. 그래도 한학기동안 교수님수업들으면서 항상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기회가또있으면 듣고싶을정도로요ㅠㅠ 감사했습니다 밖에서보면 꼭인사드리겠습니다!

할.. 교수님감동이에요ㅠㅠ저음이는 현대인과 성서를 스스로가 많이 읽어냈는데 교수님 덕분에 좀더 다가가고 기독교에 조금은 관심을 가질수 있었어요! 기독교 이야 기본만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글요일 일고시여서 지칠때도 많았지만 전공 과목수업듣는것 보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또 기하지않고 도전해서 좋은결과 얻어서 자랑하겠습니다!!!!물론 넌섬도 잘볼게요! 감사합니다 😊!!

저도 한학기동안 교수님의 수업이 제 종교적인 관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조금도 못했던 즐거움을 교수님 덕에 많이 즐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 뵈면 항상 먼저 다가가서 인사드리는 자생인이 되겠습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교수님 꼭 고품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수님 사진특강 진짜 꼭 보고 싶습니다 ㅋ 한학기 감사했습니다!

학 교수님!!!!감사합니다진짜8x8 저도 처음엔 불교라서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에 당황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기독교에 대한 벽이 없어진것 같습니다 ㅠㅠ 그리고 좋아서 가끔 최종합니다ㅠㅠ 저희 지루하지 않게 영화,특강 등 재밌는 수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반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 했는지 몰라요 ㅠㅠ 다음에 현대인과 성서를 또 들을 기회가있다면 꼭 교수님 수업 듣고싶습니다 ㅠㅠ 교수님을 보면 오히려 제가 컸피 사드려야 조ㅠㅠㅠㅠ 공부 열심히 하고,몰라도 어떻게든 풀어서 교수님을 행복하게 괴롭히도록(*0*)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사진특강이있다면 꼭 가겠습니다) 한학기 동안 저를 변화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을 되돌아보며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현대인과 성서’는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복음,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강의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다. 2016년 1학기 강의를 마치고 학생에게 받은 문자를 잠시 살펴보겠다.

물론 문자를 보낸 학생들이 진정한 변화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강의 초기에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내려놓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를 통해 ‘현대인과 성서’ 과목이 학생들의 성서와 복음에 대한 불신과 편견의 벽을 해소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의와 사역의 교차점, ‘현대인과 성서’ 강의

‘현대인과 성서’는 단순히 강의의 의미를 넘는 더 큰 의미가 몇 가지 있다.

첫째, ‘현대인과 성서’는 과목이 아니라 사역이다.

‘현대인과 성서’를 강의하기 위해 강단에 서는 강사들은 선교를 위해 강단에 서는 것과 같은 각오를 한다. 왜냐하면 강의 한 편으로 기독교에 대해 실망했거나 반감이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더욱 큰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과 성서’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서는 것

은 청년부 사역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대인과 성서'는 캠퍼스 복음화의 중요한 도전이다.

'현대인과 성서' 강의는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과목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과 성서'는 강의와 사역의 교차지점에 있다. 가끔 이 교차 지점에서 강의 시간에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교수와 학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청년부 사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강의실 안과 밖을 동시에 고민해야만 한다. 물론 강의실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인과 성서'는 끊임없이 강의와 사역의 교차 지점에 있다. 그러므로 이 교차 지점은 강의에 대한 보람과 사역의 기쁨으로 가득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현대인과 성서' 과목이 '한남대학교'라는 황금어장에서 그물로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한남대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에는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과목을 통해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CAMPUS MISSION 4
대학생 성서교육 현장

‘현대인과 성서’를 수강하고

김혜린(사회복지학과 16)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를 믿어온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힘들기도 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여러 교과목들을 수강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이 있다면 교양필수였던 ‘현대인과 성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나누는 방법, 죄와 죽음의 의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 십계명,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등 성경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알았던 내용도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러브페스티벌에서 뮤지컬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이야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뮤지컬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보았겠지만 '현대인과 성서' 수업을 같이 들은 친구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뮤지컬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접했을 때에 선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무언가를 알고 배운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중간고사에도 나왔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수업과 동영상을 통해 처음 들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인데 희년이 선포되는 날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매년 7월 10일은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고 빛을 진 사람에게 빛을 탕감해주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해야 하는 사람은 그날을 기준으로 해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땅들을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희년이며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경천애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난 지금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희년이구나'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조별로 토론 ppt를 만들고, 개인 발표 과제가 많아 힘들었지만 한 학기 동안 '현대인과 성서'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지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과 이야기들도 있었고, 다른 과의 친구들과 조를 나누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화젯거리에 대해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 청년 수당, 4대 강, 다문화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사회문제들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한남레이스, 공연 보기,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거부감을 줄이고 기독교 학생들에게는 기독교와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종교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대인과 성서'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과 안다는 것의 차이, 기독교가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내세 지향적인 것이 아닌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안일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CAMPUS MISSION 4
대학생 성서교육 현장

Show me the Mission, 랩퍼 비와이(BewhY)와 캠퍼스 선교

박광영 (한남대 협동교육)

비와이(BewhY)는 지저스웨거(기독교 랩 하는 사람)다. ‘이유(why)가 되라(be)’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 래퍼 비와이는 예사 인물이 아니다. 노래는 랩이지만 가사에는 교회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한다. Jesus, Holy spirit, God, Trinity, 주님, 샬롬, 야훼, 할렐루야가 곳곳에 등장한다. 기독교에 비판적인 이들도 그의 음악은 칭찬하고 열광한다. 어떤 이에게는 비와이의 자기 고백적 기독교 이야기가 불편할 듯하데 음악에 등장하는 기독교 용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무신론자지만 교회 가고 싶다”는 댓글도 달린다.

비와이는 자기 신앙을 욕하나 없이 자기만의 멋, 자랑인 랩으로 표현한다. 래퍼가 가져야 할 3대 요소 가사 전달력, 발음과 속도, 라임(Rhyme)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그의 랩은 마치 삼위일체적 사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백한다. “힙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멋이 있다. 여자를 많이 만나거나, 돈 자랑하는 게

멋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다 주어져도 ‘이것의 주인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그가 최근 지저스웨거를 뽐내며 ‘Show me the Money’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했다. 비와이는 직접과 간접이 고루 섞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알리는 선교사다.

아는 대로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직접선교와 간접선교 방식으로 선교했다. 교육과 의료는 기독교 간접선교의 중요한 축이었다. 교단에 따라 전도와 같은 직접선교와 간접선교 중 어디에 더 많은 비중과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선교 초기부터 교육과 의료는 개신교 선교의 필수적 요소였다. 특히 기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들은 근대 한국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밑바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깊은 대학들은 대부분 간접선교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이다. 근대교육 기관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배재학당,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교와 연희전문(연세대학교 전신),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이화여대 전신), 베어드 선교사와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설립된 숭실전문학교(숭실대학교 전신)가 대표적이다. 한남대학교는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에서 1948년 6월 대학설립위원회를 구성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을 모델로 기독교 지도자, 교사 및 미래의 목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다. 작지만 영향력 있는 대학을 염두에 두고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이른바 간접선교로 세워진 미션스쿨이다(『현대인과 성서』, 2014).

한남대학에 입학하면 ‘현대인과 성서’를 이수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4학년 때 재수강하기도 하지만 1학년 때 교양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채플은 4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한남대학교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다른 대학에서도 ‘성경개론’, ‘성서와 기독교’, ‘기독교와 문화’ 등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으로 수업을 한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는 불편한 과목이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없지 않지만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 이념과 선교적 사명과 동기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대인과 성서’의 교재 전반부는 성서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과 사상의 핵심을, 후반부는 성서가 지닌 현대적 의미를 살피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성’ 강사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요령을 발휘해 수업을 진행한다. 교재를 바탕으로 학생용 교재를 따로 만들어 성경껏 수업 준비를 하는 강사도 있다. 학기말에 한 학기 수업 활동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는 강사도 있다. 개강을 앞두고 현성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 수업 사례 발표를 들어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학기 초 학생들에게 ‘국제 기드온협회’ 포켓용 신약성경을 배포한 적이 있다. ‘현성(현대인과 성서)’ 수업을 나름 준비하며 직접선교 방식으로 크게 한 방 터뜨리고 싶었다. 벽에 도배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 조선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 박영식, 최치량도 있었으니까. 예수 이야기가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선택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자기 느낌을 여과 없이 최대한 편안한 문체로 감상문을 쓰게 했다. 아부하지 말고 듣기 좋은 얘기만 쓰지 말라고 부탁했다. 반기독교적도 발언도 상관없으니 읽고 진짜 느낀 점, 자기 생각을 짧게라도 써보길 거듭 부탁했다. 그리고 기대했다. 괜히 했나 싶었다. “판타지 소설 같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다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가 소금쟁이나 물 위를 사람이 어떻게…” 물론 이런 맨붕 평만 있었던 건 아니다.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있었고 꼼꼼히 읽고 물음을 남긴 학생도 있었다.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왔다”, “많은 교훈을 얻었다”, “다시 교회 다녀 봐야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없지는 않았다.

‘현성’은 원래 대형 강의였는데 소규모로 재편되었다. 재편 후에는 마지못해 하는 교양필수임에도 수강생 반응이 꽤 좋은 편이다. 의심하지 말라. 학기말 교양과목 전체 강의 평가 통계치가 증거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 같다. 먼저는 소규모 강의라 학생들과 강사 유대 관계가 비교적 친밀한 편이다. 이런 친밀감을 토대로 학생들 개인에게 관심을 더 갖도록 노력한다. 또 신앙이든 인생이든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내 만나주는 강사도

많다.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의 얘기에 귀 기울인다. 이 두 가지가 한남대학교 교양필수 '현성'만의 가장 큰 강점 같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리 사소한 내용으로 '카톡왔송'이 울려도 최선을 다해 답해주는 이런 친밀함과 진정성이 '현성'에는 있다.

강사 중 몇은 조 활동으로 한남대 캠퍼스 투어를 하게 한다. 선교사들의 숨결이 깃든 학교 건물 곳곳을 둘러보며 미션을 수행하며 사진도 찍고 문제도 풀어보게 한다. 대학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돈기념관은 초대 학장 인돈(William A. Linton) 박사를 기념한 건물로 서양식 2층 양옥 건물에 지붕에는 한옥 기와가 얹혀 있다. 선교사촌은 인돈, 서의필 등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현재는 '인돈학술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근대 문화유산으로 놓칠 수 없는 귀중한 곳이다. 2001년 대전 '좋은 집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내부에는 당시 물건들도 전시되어 선교사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일반인도 방문 가능하다. 그 외에도 탈메이지홀, 인돈 동산, 십자가 동산, 은혜동산, 정성균 선교사 기념비 등을 투어하며 선교사들의 흔적을 탐방하게 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단 간접선교인 셈이다.

무어 목사는 한남대학교 설립 당시 부지 물색과 매입에 기여한 대학설립위원 보이얼(Elmer T. Boyer) 목사의 외손자이며, 본교 성문학과(현 기독교학과)에서 20년간 헬라어와 성서 과목을 가르친 모요한(John V. Moore) 선교사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보계련(Katherine Moore) 선교사 부부의 아들이다. 그는 올해 4월, 60주년 기념 설교에서 "저는 한남대학교가 학생들에게 탁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뛰어난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선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들은 이러한 목적들을 뛰어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최고의 동기는 선교였습니다. 한남의 설립자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어오고 있는 그 사명은 6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라며 설립 이념과 미션을 강조하였다.

이런 한남대학이 올해 환갑을 맞았다. 살아온 60년을 돌아보고 살아갈 60년을 돌볼 때가 된 것이다. 비와이(BewhY)는 이름 그대로 우승의 이유가 되었다. 한남대학은 60년 전 이곳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운 이유(whY)를 잊지 않고 선교적 사명을 잃지 않아야겠다. 선교적 표현 방식에는 스펙트럼은 넓히되 선교적 사명에는 자신감을 갖고 이름값 할 수 있어야겠다. 바라기는 '현대인과 성서'를 통해

CAMPUS MISSION 4
대학생 성서교육 현장

현대인과 성서로부터 배운 것들

박준(경영학과 16)

저는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처음 해보는 타지 생활로 즐거우면서도 힘들었던 한 학기를 지냈습니다.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치고 나니 돌아보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 중 하나가 현대인과 성서입니다. '현대인과 성서'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과목 이름을 보고 '그냥 가서 편하게 수업 듣고 시험 보고 점수 잘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업을 들어갔을 때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과 성서'는 단순히 성서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 죄의 근원,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꿈쟁이 요셉, 예수님과 열두 제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등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었고 몰랐던

사실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연인과의 관계, 환경 위기, 전쟁, 다문화 등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자기 미래 설계와 성경인물을 통한 성격분석을 함으로써 나의 비전과 꿈에 대해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수업과 활동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문화를 통해 비기독교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제, 'Love Festival'에 참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페스티벌에서 스텝으로 섬겼는데, 지금까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받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처음으로 스텝으로 봉사해보니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와 섬김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생각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설교자나 뮤지컬 배우들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보이는 봉사나 뒤에서 기도와 스텝으로 섬기는 봉사나 다 똑같은 봉사이되, 단지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라”(마태복음 20:28)는 말씀이 마음에 더욱 와 닿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인과 성서를 통해 서로 다른 친구들과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해 토론하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회 현상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성서적인 면들뿐만 아니라 야외활동, 미래설계, 공연관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비기독교인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현대인과 성서’ 수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探

V I S

캠퍼스 소그룹 탐방
: 생활관 인성교육

訪
S I T

탐방

소그룹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 이어진(한남대 전임교목)

소그룹 인성교육 학생모집

미국 남장로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의 헌신적 사랑과 열정에 의해 설립된 한남대학교는 채플, 기독교 학과목 수업, 학생 신앙훈련 등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건강한 가치관을 두루 갖춘 젊은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특별히 최근 인성이 점점 매몰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인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들이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한남대 교목실은 기존의 학생 신앙훈련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새롭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는데, 생활관(기숙사)에 머물고 있

는 신입생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 모집은 생활관 채플 시간에 이루어졌다. 3월 첫 주 생활관 채플이 끝나고 광고 시간에 신입생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한 후, 신청서를 배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약 30명 정도가 관심을 표했으며, 그중 22명의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참여했던 학생들은 전원 본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였다.

관계를 통한 인성교육

교목실은 이번 생활관 인성교육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주목적을 확고히 하였다. 일차적 목적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 사회를 섬기며 이끌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인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중요한 인성의 덕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찾은 감사, 성실, 순종, 기쁨, 절제, 평화, 이 6가지 주제들이 핵심 가치로 선정되었다. 각 주제가 한 주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료가 되었으며, 첫 전체 모임과 마지막 수료식이 더해져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인성교육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성품을 지식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목회자, 신앙지도 교수, 학생 도우미, 그리고 참여 학생들이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의 나눔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을 삶으로 체득케 하려는 데 있었다. 이를 위

해 팀 구성은 한 명의 리더와 다른 한 명의 신앙지도교수, 학생도우미, 그리고 5-6명의 참여 학생들로 제한하여 총 4개의 팀으로 나누었다. 각 팀당 8-9명씩, 소수의 멤버들로 제한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목표하고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감동을 통한 인성교육

인성교육의 주제와 틀은 일반적인 인성교육과 크게 다를 바 없었으나 그것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의 방식은 매우 달랐다. 첫 모임이 시작되기 한 주 전, 각 팀의 리더들과 학생 도우미들이 모여 본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성교육은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훈련도,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도 프로그램도 아니었다. 참여 학생들 가운데 60% 정도는 기독교인이었고, 나머지는 비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지는 결국 복음이어야 함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인성교육을 통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궁극적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다양한 견해들이 개진되었으나, 모든 리더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날의 키워드는 '감동'이었다. 지식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은 다른 곳에서도 이미 제공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기독교학교인 한남대학교에서 치러지는 인성교육만이 보여

줄 수 있는 차별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자는 것이었다.

먼저, 교육 내용을 통한 '감동'이었다.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 중 대부분은 성경이나 교회 역사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직접적인 복음의 선포나 전도는 없었지만,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둘째, 경청을 통한 '감동'이었다.

교육 시간은 일방적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견해를 나누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감동'을 받았다.

셋째, 섬김을 통한 '감동'이었다.

팀리더와 신앙지도 교수 그리고 학생 도우미들은 선생이나 선배의 위치가 아닌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인성을 훈련하며 배우는 동등한 자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 노력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컵라면을 들고 직접 생활관이나 공부하고 있던 도서관으로 찾아가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넷째, 식탁 교제를 통한 ‘감동’이었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 학생 도우미들은 간식을 미리 세팅해 놓았다. 신앙지도 교수님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의 참여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환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돌아보면, 식탁에 마주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소소한 삶의 고민과 재미들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인성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 것 같다.

인성교육, 그 이후

8주간의 감동적인 만남의 시간이 마쳐진 후, 참여했던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처음 하는 시도여서 미진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생각들이 변했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의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들을 나누던 시간은 한 팀을 이끌었던 리더로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의 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기독교인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급진적 변화는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했던 학생들은 모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을 섬겼던 리더, 지도 교수, 학생 리더들이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다. 프로그램의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순간, 한 학생이 했던 질문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큰 울림

으로 남아있다.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하는 거죠?
저희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한남대에 뭔가 좋은 것들이 있나 보죠?
국가 지원금이 더 많아진다고
뭐 그런 것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건 없어.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인성을 가진
좋은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야.”

이것이 나의 표면적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질문을 받는 순간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리고 감사했다. 우리들의 섬김이 그 학생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향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어느 참여 학생의 바람처럼,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완성되고 준비된 인성교육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감동을 받게 되기를 희망해본다.

인성교육에 참여하고

표성민 (컴퓨터통신무인기술 16)

처음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까칠한 나의 성격과 잘못된 사고를 바꿔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인성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좀 더 나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할뿐더러 여자랑은 단 한 마디도 나누기 힘든 것을 고치고 싶었고 이리다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었다. 다행히도 앞선 걱정이었던 것 같다.

인성교육을 받으려온 친구들은 과연 인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다. 좋은 취지에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되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아직 말도 잘 못 붙이고 대화를 할 때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8주가 처음엔 길고 긴 시간으로 보였지

만 돌아보니 짧은 시간처럼 느껴진다.

인성교육을 지도해주신 목사님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나누었는데, 사랑과 용서가 가장 마음속에서 울렸던 주제였다.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닉부이치치와 관련된 영상을 나누었는데, 이미 보았던 영상이지만 사랑에 대한 생각을 목사님과 정리해 보고 난 후여서 인지 더욱 마음을 울리고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깊게 반성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용서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 해도 누군가에게는 쉽게 용서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다. 난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담고 쌓아 두는 편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는 않는다. 인성교육을 하면서 역시 인성교육을 신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좀 더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남과 다툼 없이 지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 듯하다. 8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한 학기만으로 끝난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

청년자원봉사단원(YAV)으로 미국에서 보낸 1년

조수휘(법학과 12)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조수휘라고 합니다. 제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참여했던 청년자원봉사단(YAVs: Young Adult Volunteers) 프로그램은 미국장로교 선교프로그램입니다. 19세-30세의 청년들이 목적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성장하면서 배우고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며,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1년 동안 지역 파트너들과 더불어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며 함께 섬깁니다. 또한 YAVs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깊은 경청 훈련을 통한 분별 과정 거치며, 영적 훈련과 인간관계 및 공동체의 삶을 통해 1년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20대에 시간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기도하였을 때,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교환YAV를 보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고민하던 중 미국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다시 전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였던 곳은 한인장로교회, 덴버노회, 이주민 센터 총 세 곳이었습니다. 덴버에 사는 한인 수는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덴버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점점 청년세대가 사라져가고 큰 교회들이 쇠퇴해져서 작은 교회로 건물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했던 사역은 목사님을 도와 예배를 준비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문화로 1세대와 소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2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1세대와 2세대를 연결시켜주며 그 속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 교회 문제와 갈등 등을 파악하며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반주자와 방송팀으로도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섬겼던 곳은 덴버노회입니다. 제가 노회에서 했던 역할은 여러 교회에 초청받아 한국에서의 신앙과 삶을 간증하기도

하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 선교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커뮤니케이터로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아직 아시아계 교회들(베트남, 미얀마, 한국)이 덴버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다문화교회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교회 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고민하며 제가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예배 모습과 교회 내 갈등문제 해결 방안을 서로 나누며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노회의 행사들에 노회 일원으로 파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주민 센터(African Community Center)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미국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 영어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하는 이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Case manager를 도와 영어가 되지 않는 이주민들을 대신하여 Green Card, SSN, Food stamps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갑작스럽게 오게 된 이주민들을 대신하여 집을 구하거나, 건강, 자녀, 학교 문제, 정부와 소통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함께 사는 5명의 친구와 함께 매주 월요일 공동체 시간을 통해 첫 주는 서로의 봉사활동 장소에 가서 함께 도와주기도 하며 책 토론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정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직접 노숙체험을 통해 노숙인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함께

인권운동에 동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영성 훈련 시간을 인도하였으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업적으로 저희를 부르셨는지를 묵상하고, 도시 속의 침묵 행진을 통해 도시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하였던 1년의 시간을 요약한다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미국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시며 사랑으로 함께해주셨던 하나님과의 동행, 한국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로 함께해주었던 동역자들과의 동행, 그리고 미국 땅에서 새롭게 만나 1년을 함께 보내었던 친구들과의 동행으로 인해 1년을 귀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1년의 삶은 제게 많은 변화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주의였던 저를 영어를 통해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저는 실수를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했고 실수를 하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엄격하게 훈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 처리에 있어서도 항상 완벽해야 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스스로가 주는 죄책감과 정죄는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면서 스스로는 용서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생활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어를 원래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5명의 미국 친구들과의 생활 속에는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아진 자존감과 또 실수를 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말을 건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활발했던 저의 성격은 점점 침묵을 지키는, 조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정표현 하나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영어를 잘했다더라면 한국에서처럼 제 의견을 다 말할 것이고 저의 감정표현 또한 느끼는 그 즉시 말했을 것입니다. 곧바로 표현할 수 없으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의 끝에 보이지 않았던 저의 잘못된 감정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에게, 리더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1년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문화 중 하나가 바

로 '참견'이었습니다. "살 좀 빼", "화장 좀 해", "남자친구 좀 사귀어", "학교는 왜 거기 갔어?" "너 꼭 그 진로로 가야겠어?" 등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 제 삶을 조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제 자신을 남들의 평가에 의해 낮고 또 낮은 사람으로 둔갑시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기 바빴고, 저를 잃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제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비만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눈으로 보기에든 촌스러운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 눈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습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피아노가 여러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던 것을 좋아하던 제게 그 피아노에 앉아서 곡을 연주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콜릿 가게에 들어갔을 때는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 많은 돈을 소비하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상점에 들어가 초콜릿 하나를 구매하기까지 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 속에 박혀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의 평가 속에 자라왔던 제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자기 길을 걸어가던 미국 사람들의 모습은 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줄 알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 고민하며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오빠와 저를 먹여 살리시느라 바쁘신 어머니와 여느 남매와 마찬가지로 티격태격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빠와의 갈등 속에서 자란 저는 늘 사랑에 대해 목말라했습니다. 그런 제게 다가와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에 대해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남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밤 공동체 영성시간 인도를 준비하던 그때, 다윗왕의 고백이 제 속에 박혔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편 27:4). 어떻게 해서 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 왕이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사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의 고백이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고 싶고, 서로가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는 말처럼 저도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닌 정말로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닮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눠야 하는 자로서 바라봐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성장하는 가운데 있고 실수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20대에 시간의 십일조로 드렸던 미국에서의 1년을 통해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를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존재임을 인정하며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느꼈던 감정과 생각 또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짧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실 때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TEERS

C A M

데몰리션, 견고한 껍데기를 부수고

| 임세은(영화 칼럼니스트)



M O

아내가 죽었다. 눈앞에서 차 사고로 죽었다. 평온한 삶이 깨어진 순간이지만 남자는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 어떤 미동도 없던 남자는 갑자기 배가 고파서 초콜릿을 사러다 자판기 오작동으로 먹지 못한다. 그는 자판기 회사에 장문의 항의 편지를 보낸다.

영화 <데몰리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잃은 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남자의 삶과 그 무너짐 가운데 되찾아가는 진실한 삶의 속살을 보여 준다. '파괴, 폭파'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데몰리션> 영화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남자가 자신의 무감각을 깨닫는 일에서, 껍데기를 파괴하고 부수는 행위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그 속살을 들여다보게 되는 과정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음을 깨닫기까지

십 분 전에 아내를 잃은 데이비스(제이크 질레할)가 보일 정상적인 반응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일이겠지만, 그는 지나치게 무덤덤하다. 데이비스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자 아

C A M

내의 아버지인 필(크리스 쿠퍼)은 처음엔 어떤 슬픔도 내색하지 않는 사위의 모습을 갑작스러운 충격 탓으로 돌리고 이해하려 한다. 초콜릿을 먹지 못해 자판기 회사 고객센터에 부쳐지는 항의편지에 데이비스는 평범하지 않은 지금의 처지와 사적인 과거까지 고백한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처럼 자신의 일상을 시작하고 회사에 출근한다.

예상치 못한 일에 예상치 못한 반응과 기괴한 행동을 하는 그의 모습이 어찌면 당연해 보이는 것은 삶에서 충격적 사건이 주는 여파의 크기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행동은 보통의 경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무시한 채 생이 주는 감각을 느낄 여유도 없이 살아온 것이다. 사장의 딸인 아내 덕분에 회사에서 쉽게 중요한 직책에 올랐고,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엄청난 돈을 움직이고, 오랜 시간 째여진 일상을 지내왔다. 그 생활이 너무 견고해서 아내를 잃은 사건도 쉽게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영화 초반부에 데이비스의 그런 무감각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을까. 아내를 처음 만나 결혼을 하고 장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아내를 잃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는 전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처럼 고백한다. 하지만 불쑥 떠오르는 기억의 편린 속 아련한 아내의 미소는 그의 무감각한 삶을 뒤흔든다.

M O

P U S

파괴가 필요하다: 이상한 만남과 성장

“바쁜 척 그만하고 나 좀 고쳐줘요.” 차 안에서 이렇게 적힌 쪽지를 발견한다. 생전에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다. 데이비스는 언젠가 장인이 말했던 “무언가를 고치려면 분해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봐야 한다”라는 조언에 따라 무언가를 자꾸 분해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커피머신을, 컴퓨터를, 화장실 문짝을, 냉장고를 분해한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알기 위해 결혼을 분해하고 해체한다.

긴 장문의 고백이 담긴 항의편지를 받은 고객센터 직원 캐런(나오미 왓츠)은 늦은 밤 데이비스에게 전화를 건다. 걱정스레 함께 얘기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지만, 캐런의 삶도 아내를 잃은 누군가의 상실감과 절망을 위로해줄 넉넉한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녀는 반항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 크리스 때문에 골치다. 스스로의 문제도 버거운 평범한 영혼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특별한 만남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충분하다. 캐런과의 만남으로 데이비스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감각하는 법을 배우고, 거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십대 크리스는 상실의 사춘기를 보내야 하는 그에게 친구 같은 역할을 한다.

이행의 시기, 본격적인 파괴를 진행해야 할 시기, 그렇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는 시기를 데이비스와 크리스는 함께 치른다. 마치 새가 되기 위해서 알에서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하듯 성인 남자와 사춘기 소년은 같은 시기를 보낸다. 데이비스는 공사현장에서 집을 부수다가, 번쩍거리는 표피적 화려함으로 가득 찬 자신의

V I E

C A M

집을 크리스와 함께 부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서서히 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파괴의 위험성이 보이는 순간도 있다. 본질적으로 필요한 해체이지만, 생명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경계를 넘으려는 이슬이슬한 순간이 영화 속에 보인다. 사춘기 청소년의 행동이 위험해 보이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폭력이 파괴해야 할 걸 꺾질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중요한 부분까지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속 긴장감은 총이 주는 상징성, 즉 힘과 능력에 대한 소유의 매혹에 사로잡혀 총을 쏘고 싶어 하는 소년과 이 상한 파괴적 도취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이에게 총을 쏘도록 부추기는 장면이다. 남자는 방탄복을 입고 소년이 자기에게 총을 쏘도록 허락한다. 마치 로빈 후드가 머리 위 사과를 쏘듯 이들은 지나치게 위험한 장난을 벌인다. 총을 가졌고 맘대로 하고 싶은 방종한 소년과 자기 파괴의 열기에 사로잡힌 남자가 벌이는 게임의 위험성이 절정에 이를 때 이들은 그 경계 지점을 이슬이슬하게 통과한다. 이후 데이비스가 해방감에 취해 도심 속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장면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쉽고 사소한 것들

“전에 못 보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해요. 어찌면 보긴 봤는데 무심하게 본 거겠죠. 모든 게 은유가 됐네요.”

M O

데이비스에게는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 특별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던 아내의 말이 떠오른다. 영화 초반에는 데이비스가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은 사람처럼 묘사된다. 평범하게 자란 자신의 환경과 달리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기까지 데이비스는 아내라는 큰 행운을 너무나 쉽게 손에 쥘 것처럼 보인다. 이어진 결혼생활에서도 아내의 존재는 항상 데이비스의 삶의 뒷면에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편리하고 안락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림자처럼.

아내에 대한 그의 고백들은 일상처럼 담담히 이어지고, 아내에 대한 기억은 잃어버린 풍경처럼 그의 내면에서 솟아오른다. 카렌과의 대화를 통해 데이비스는 기억의 편린들을 찾아가고 그 풍경의 의미를 발견한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무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의사를 찾아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지내온 지가 일 년 이상, 아니 오년 이상, 아니 너무 오래여서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고백한다.

당연하듯 항상 있어왔던 것들, 돌아보면 항상 손에 잡을 수 있는 쉬운 존재들. 그렇듯 자기에게 쉬운 존재였기에 무심하기만 했던 남자는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의미를 쉽게 깨닫지 못한다. 역설적이게도 쉽고 사소한 것들의 의미를 깨닫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너무 쉽고 당연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다반사가 비추는 큰 빛의 속내를 영화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 준다.

C A M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

아내를 잃고 무감각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잠들기 전 침대에서 보던 영상, TV 다큐멘터리가 있다. 그 이미지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가 잃어버린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눈 오는 설원 속 따뜻한 온천물 안에 있는 원숭이들이 서로의 털을 골라주고 있는 장면. 가장 사소한 일상에서 가장 사소한 일을 나눌 상대가 사라져 버린 그 사건을 그는 보고 있다. 너무 쓸데 없어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일이라 일어났는지조차 기억하기 힘든 일에 대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상이 그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라고.

빛나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거두어지고 남은 속살이 드러난 곳에 인간 본연의 모습, 차등 없이 평등한 존재들, 호호하는 생명들,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좋은 집과 환경, 나를 빛나게 할 지위와 명예를 갖추고 사는 일이라고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말한다. 품위 있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시작은 외면을 갖추는 일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의미 있게 바라봐 주는 일'이라고,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이비드가 장인에게 아내를 기리는 사업으로 제안한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죽은 딸을 위한 사업으로 장인이 기획한 일은 미래의 젊은 인재에게 장학금을 주고 후원하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밝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생

산이 가능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인재를 기르는 일은 분명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런 장인의 후원 사업이 마음에 닿지 않는다. 아내의 소중함과 의미를 점차 깨달아가는 데이비드 역시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가 제안한 일은 영화 속 마지막 이미지로 펼쳐진다. 세상에서 더 이상 무가치하다 판결을 받고 사라진 회전목마를 다시 세워 돌게 하는 일, 그리고 평생 살아도 세상에 유용한 일이라곤 할 것 같지 않은, 재투자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장애인에게 투자하고 돈을 쓰는 후원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뛰어다니고 회전목마를 타고 즐겁게 놀아주는 일이다. 공기처럼 사소하고 쉬워서 한 번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아내라는 존재에 대한 보답으로 그가 생각해 낸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다.



Acoustic Machine

| 이어진(한남대 전임교목)

어쿠스틱 머신(Acoustic Machine)은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퓨전 클래식 인디밴드이다. 어쿠스틱 머신의 음악은 부드러운 중저음 보이스의 리드 보컬 박용권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어쿠스틱기타, 베이스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클래식 악기와 포크라는 음악 장르 그리고 락(Rock) 색이 짙게 묻어나는 보컬의 조합, 뭔가 어색해 보이지만, 그들의 음악이 시작되면 그 모든 어색함은 웬지 모르게 또 듣고 싶어지는 매력으로 바뀐다. 리드 보컬 박용권은 어쿠스틱 머신이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희망 없는 시대,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이 시대의 아픈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어쿠스틱 머신을 시작하게 했어요.

길거리, 카페, 공연장, 교회, 그 어느 곳이든 희망의 메시지를 갈구하는 이들이 모인 모든 곳은 그들의 무대가 된다. 어쿠스틱 머신은 특별히 길거리 공연을 자주 기획한다. 입장료가 없어도, 차한 잔 마실 여유가 없어도, 누구나 잠시 멈추면 들을 수 있는 그곳.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과 함께 그들은 그 거리에서 희망을 노래한다.

어쿠스틱 머신이 지난 2016년 3월 결성 7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동시대의 기독교 정신을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첫 앨범에는 총 10곡의 아름다운 음악들이 수록되었다. 깔끔하게 디

자인된 앨범의 비닐을 뜯고 CD를 꺼내서 카 오디오에 넣자마자
상쾌한 음악이 나온다. 세련되게 편곡이 된 찬송가 ‘그 크신 하나
님의 사랑’이다. 색다르지만, 거부감이 없는 사운드! 클래식악기와
포크음악의 만남! 나무악기의 울림만으로 만들어진 사운드는 꽤
훌륭했다. 거기에 리더의 걸쭉한 목소리는 이 곡에 매력을 더했다.

필자에게 이 앨범의 최고의 곡을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
고 2번 트랙 ‘탄식의 시’를 뽑겠다. 보통의 CCM에서는 들을 수 없
는 글루미한 색감이 더해진 곡이다. 우리가 잘 놓치고 있지만 시
편의 시 중 60편 이상이 탄식의 시이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싶어 했던 탄식이 주는 무거움과 슬픔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믿음의 길이란 것이 언제나 기쁘기만 하겠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합니다
나로 주의 곁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는 나의 피할 높은 바위시오
영원히 거할 나의 장막이시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타이틀 곡 ‘눈물병’은 좀 더 편안한 노래이다. 지금의 교회에서 많이 불리는 스타일의 노래이지만 나무 악기가 주는 따듯함이 그대로 전해져 뭔가 특별한 느낌을 준다. 7번 ‘할렐루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곡이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드넓은 초원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할렐루야 주는 거룩

할렐루야 거룩 거룩

할렐루야 주는 거룩

할렐루야 거룩 거룩

높은 하늘 아래서
산꼭대기 위에서 찬양해
 빗줄기 아래서
 치는 파도 위에서
그의 위대하심을 외치라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존귀 존귀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존귀 존귀

타는 태양 아래서
높은 가지 위에서 찬양해
 푸른 나무 아래서
 천사들과 다 함께
그의 은혜로움을 감사해

필자가 단번에 앨범을 다 듣고 처음 든 생각은 특별하고 따뜻한 음악이라는 것이다. 나무 악기만으로도 이만큼의 호소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에는 좀 놀랐다. 다음 앨범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사뭇 기대되는 팀이다. 무엇보다 아프고 지친 친구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앨범명: Acoustic Machine CCM Vol.1
아티스트: 어쿠스틱 머신(Acoustic Machine)
발매일: 216.03.18
장르: CCM

곡정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탄식의 시
3.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 사람의 아들
5. 눈물병
6. 복의 근원 강림하사
7. 달고 오묘한 그 말씀
8. 할렐루야
9. 내 주의 보혈은
10. Love Song

Acoustic Machine CCM

부록

소그룹
인성교육
자료



진행
순서

- 교제 및 삶 나누기 (10분)
- 동영상 시청 (5분)
- 예화 (5분)
- 메시지 (10분)
- 나눔 및 적용 (15분)
- 마무리 (5분)

동영상: 헬렌 켈러의 감사 (youtube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wcZVfJytfNs&index=13&list=PL_ynxaGAmPUVT6qhmcYr05QPTWnLRXsqI

예화

“이대료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의사의 부주의로 태 중에 있는 아기의 뇌를 잘못 건드려 소녀를 다친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곱 살

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엮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열 살이 넘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여섯 살 되던 해 그녀가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교회 강단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해 1979년 10월 어느 날 저녁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송명희 씨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 송명희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 하여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니라 값이 너무나 커서 그 값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도 이십 대가 되면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월체어가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 수 있나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드시 들어 쓰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그러던 어느 날 연희동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교회

에서 가장 친하던 친구 최인자 언니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월체어도 아무 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짝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어 감동으로 주신 그 유명한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느 날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송명희 씨와 어머니는 당황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명희 씨는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이대호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후에 부사장님은 극동방송에서 송명희 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흐느꼈습니다.

“명희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호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송명희 시인은 1985년 5월부터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1천 6백여 회 집회를 인도하며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섭섭함과 괴로움을 느끼는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네 몸만 보여도 된다.” 그래서 그녀는 가서 몸만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을 찾아갔고 교도소와 소년원을 찾아갔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갔고 미국, 일본, 대만, 유럽 곳곳을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몸으로, 영혼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목도 가누지 못하고 힘겹게 더듬거리

며 말했습니다.

“내, 내가 이, 이런 몸이 아, 아니었다면 여, 여기 오지 않았을 거, 것입니다. 그, 그 이름의 비, 비밀은 그, 그 이름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 이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그 이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10분 정도만 머뭇거리며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에 감동을 받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출처] <http://matt1616.tistory.com/3>

동영상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Youtube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exuoFilQoas>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 5: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 테스트

상황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족 때문에 힘들 때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적용 및 나눔

- 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 너무 큰 것부터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진행
순서

- 교제 및 삶 나누기 (10분)
- 동영상 시청 (5분)
- 예화 (5분)
- 메시지 (10분)
- 나눔 및 적용 (15분)
- 마무리 (5분)

동영상

성실이라는 무기 (youtube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2svwCyvmudQ>

생각해 보기

요즘은 “성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 많이 회자된다. 그러나 이 말을 완전히 곡해하여 “성실한 사람이 바보다”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한 사람의 성공은 ‘성실’이라는 덕목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 뒤에 그 사람의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땀과 눈물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름없

기 때문이다.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경우, “천재적 영감은 단 1%이며 나머지는 노력”이라는 고전적인 말을 남겼다.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아이디어 창출 역시 열정과 성실한 노력의 결과라는 말로서도 알 수 있듯이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그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 “소처럼 우직하게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사귀어두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 친구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전념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결국 내가 그 밑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있든지 성실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창의력이 뛰어난 대단히 좋은 머리도, 굉장히 넓은 인간관계도, 결과는 불을 보듯 환하다. 성실만으론 안 되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화 <와일드카드>에서 안마시술소 사장으로 열연했던 중년의 배우 이도경은 12년간 단 두 편의 연극을 해왔다. 한눈팔지 않고 한 작품에만 ‘우직하게’ 매달리는 그의 열정은 연극 내내 관객을 웃기고 울린다. 영화 출연 이후 여러 영화나 드라마, CF 등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했으나 그는 연극을 위해서 이 모든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떤 일 한 가지를 한눈팔지 않고 10년 이상 해왔다면, 그 사람

은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다. 이도경 역시 '연극' 하나만으로도 박수받을 자격이 있다. 한 편의 연극이 곧 10년을 맞을지도 모를 만큼 꾸준하게 달려왔다. 하긴 7년은 어디 쉬웠을까. 그는 과로로 쓰러졌을 때, 극장 조명이 나갔을 때, 그리고 시위로 교통이 막혀 뛰어서 극장까지 갔으나 너무 늦었을 때 등 세 차례를 빼고는 한 번도 쉬지 않은 개근 배우다.

'꾸준히'는 나약한 사람을 주저앉히려는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보상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없다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이겨내기 힘들다.

기도나 명상, 맨손체조, 줄넘기, 가벼운 조깅, 30분 걷기, 책 읽기, 외국어회화 공부하기 같은 일은 얼마나 많이 계획하고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가. 아마도 이런 일을 3개월 정도만 했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다.

조금 느슨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결론짓고 포기하지 말자.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거나 이어서 하면 된다. 작심삼일을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작심삼일을 실천하면 결국 꾸준할 수 있다고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운동을 한 일 주일 빼먹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고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다. 영어공부를 한 사나흘 게을리했다고 해서 그 전에 공부한 것이 모두 무용지물 되는 것도 아니다. 다시 이어서 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10년 전 오늘로 되돌아간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겠는가? 그렇다면 10년 후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10년 전 오늘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과 부, 행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꾸준함이 진정한 실력이다.

[출처] 성실-성공한 30대 DNA!작성자 본

<http://blog.naver.com/orche2/80012077609>

메시지

골로새서 3: 23-24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 나누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은?

상황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는?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은?		
내가 맡은 일이나 잔심부름 할 때,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일을 할 때 나의 모습은?		
내 앞모습과 뒷모습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 나의 모습은?		

적용 및 나눔

- 신실한 삶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눠봅시다.

진행
순서

- 교제 및 삶 나누기 (10분)
- 동영상 시청 (5분)
- 예화 (5분)
- 메시지 (10분)
- 나눔 및 적용 (15분)
- 마무리 (5분)

동영상

하늘같은 든든함, 아버지_몰래카메라 편 by KB금융그룹
(youtube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9-VkbFe2U3U>

예화

“순종의 어원”

순종의 어원은 아라비아의 명마를 길들이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말들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습

니다. 사람들은 명마를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에게 명마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때 주인은 다음날 오전 11시에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온 사람에게 주인은 개울가 사막 언덕의 기둥에 매여 있는 수많은 말들을 보여 주면서 두 시간 후에 보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마침내 언덕 위의 말들은 목이 타들어가고, 결국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뚝에 맨 줄을 풀어준 뒤,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줄이 풀린 말들은 언덕 아래 개울로 쏟아져 달려가서 개울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다시 호루라기를 불니다. 대부분의 말들이 주인의 호루라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물을 먹고 있는데, 그중 몇 마리의 말들이 눈앞의 물을 뒤로하고 머리를 돌려 주인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이들이 바로 아라비아 명마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부모의 사랑“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도 더 되는 1962년 2월 10일, 여수 남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부인이 노력 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내는 박수소리로 떠나갈 듯했고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 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집이 세 채밖에 없는 외딴 섬에 살았습니다. 주민이라고는 겨우 20명뿐인 이 섬에서는 제일 가까운 여

수에 불일이 있어도 섬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여덟 살이 되자 남편에게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20리나 되는 뱃길을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섬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딸을 남편 몰래 육지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20리나 되는 험한 물길을 가로지르며 손수 노를 저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으면 딸이 애처로워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 같이 오간 뱃길이 무려 3만 3천 리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에베소서 6:1-3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적용 및 나눔

-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자.

기쁨

진행
순서

- 교제 및 삶 나누기 (10분)
- 동영상 시청 (5분)
- 예화 (5분)
- 메시지 (10분)
- 나눔 및 적용 (15분)
- 마무리 (5분)

동영상

닉 부이치치의 기쁨

<https://www.youtube.com/watch?v=51ZmDONxn6k>

예화

자폐증을 앓는 소년이 시험을 망친 뒤 선생님에게 받은 편지

시험을 망친 자폐증 소년에게 특수학교 교사가 보낸 편지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에 사는 벤 트위스트(11세)에 대해 보도했습

니다. 벤 트위스트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년으로, 올해 학업성취도평가시험(SAT)을 치렀으나 모든 과목에서 낙제했습니다.

벤이 다니고 있는 랜스배리 브리지 특수학교 교사 루스 클락슨은 시험을 망친 벤을 위해 정성스러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에게,

SAT를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네 친구들과 너는 올해 매우 잘해줬고 많은 발전도 있었다. 너와 네 부모님에게 시험의 결과를 전하려고 한다.

시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아주 일부분밖에는 측정할 수 없단다. 시험이 평가할 수 없었던 네 특별한 능력은 다음과 같다. 예술적 재능, 협동심, 향상된 독립심, 친절함, 의견을 말하는 능력, 운동 능력, 친구들과의 관계, 토론과 평가 능력, 디자인과 건축 재능, 음악적 재능 등등. 우리는 너의 수많은 재능이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과 네가 점점 밝고 사랑스러운 남자로 자라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정말 잘했어, 벤. 우리는 네가 자랑스럽다.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본 벤의 어머니는 매우 감동했고, 곧 자신의 SNS에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이 편지는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벤의 어머니는 메트로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아이를 특수 학교가 아닌 평범한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보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느낀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아들 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사실이 매우 행복하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출처]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http://www.ytn.co.kr/_ln/0104_201607171510063096

메시지

빌립보서 4: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적용 및 나눔

- 요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절제

진행 순서

- 교제 및 삶 나누기 (10분)
- 동영상 시청 (5분)
- 예화 (5분)
- 메시지 (10분)
- 나눔 및 적용 (15분)
- 마무리 (5분)

동영상

절제

<https://www.youtube.com/watch?v=kUSFqEItsQE>

마쉬멜로실험 그 결과는

https://www.youtube.com/watch?v=DOp_kKPhnN4

예화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 “가난한 중국 이민자 가정 자녀들이 학

업 성취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

동양적 스파르타식 교육법의 우월성을 강조한 책 『타이거 마더』로 세계적 논란을 일으킨 에이미 추아 예일대 법대 교수는 새로 낸 책 『트리플 패키지』에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근무 중인 남편 제드 러벤펠드 교수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다른 집단보다 탁월한 성과를 내온 유대인, 모르몬교도, 중국계, 인도계, 쿠바계, 레바논계, 이란계, 나이지리아계 등 특정 종교나 민족 8개 집단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답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우월감(superiority complex)과 불안감(a deep sense of inferiority), 절제력(impulse control)이 그것이다. 방학을 맞아 뉴욕 맨해튼 자택으로 돌아온 추아 부부를 만나 새 책의 내용과 타이거맘 식 교육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계 미국인인 추아 교수는 『제국의 미래』, 『불타는 세계』 등을 쓴 베스트셀러 저자이고, 러벤펠드 교수 역시 권위 있는 미국 헌법학자이자 32개 국어로 번역된 추리소설 『살인의 해석』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번 책은 이전에 썼던 것과 주제가 다르다.

추아 『트리플 패키지』는 특정 집단이 성공한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성공한 집단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생각한다. 물론 누구나 현재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미래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선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제드는 이 주제에 관해 『자유와 시간』이란 책을 썼다.

러벤펠드 미국인들은 현재에 안주해 산다. 미래나 과거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현재 순간을 즐기는 데만 치중한다. 이걸 ‘즉자적 만족(instant gratification)’이라고 부르고 싶다. 지금 미국 사회는 즉자적 만족에 빠져 성공의 필수 조건인 트리플 패키지를 상실했다. 트리플 패키지는 15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답이다.

— 세 가지 특질 중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추아 균형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하나가 너무 지배적이면 문제가 생긴다. 아리안족(族)의 우월성을 강조한 나치가 2차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게 대표적이다. 또 자부심이 너무 강하면 ‘나는 위대하니까’ 하며 게을러질 수도 있다.

러벤펠드 불안감이 너무 강하거나 또 우월감과 불안감은 있는데 절제하는 능력이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 트리플 패키지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러벤펠드 후천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믿는다. 물론 유전적 영향을 받는 선천적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는 후천적 영향이 강력하다.

추아 오바마 대통령이 좋은 예다. 케냐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를 둔 그는 선천적으로 트리플 패키지 집단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에게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지도자가 돼야 한다” 하시면서 자부심을 심어줬다. 동시에 흑백 혼혈이란 태생 때문에 불안감도 많이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절제하

는 훈련을 시켰다. 오바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했다. 이처럼 트리플 패키지는 어린 시절에 심어주는 것이 좋다.”

—인종 우월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추아 이 책은 인종주의와 무관하다. 오히려 소수민족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책을 썼다. 책에 나온 8개 집단은 모두 문화적·민족적 자부심이 강하다. 반면 미국 주류 사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불안감도 강하다. 이는 이민 2세로서 내가 자라온 방식이다. 나는 초·중·고를 다닐 때 피부색이 달라 고민이 많았다. 발음도 서툴러서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게 금세 표가 났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미국 사회의 아웃사이드인 마이너리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많이 고민했다.

—이민자를 위해 쓴 책이라니 흥미 있는 주장이다.

추아 초등학교 4학년 때다. 나는 반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여학생이었다. 같은 반 남학생들이 항상 내 발음을 흉내 내며 놀렸다. 집에서 중국어를 썼기 때문에 중국식 억양이 영어에 그대로 묻어났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오히려 화를 내셨다. 왜 바보 같은 남자애들 때문에 우느냐고 하셨다. 그러면서 엄마는 “우린 중국에서 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다”라며 남자애가 놀려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엄마에게 배운 민족적 자부심이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막는 방패가 됐다. 트리플 패키지는 소수 집단에 더 큰 효과가 있다. 마이너리티도 주류 사회에 기죽지 않을, 믿는 구석이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민자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항상 기죽어 지낼 것이다.”

—책에 한국계 미국인들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설명한 대목이 많다. 그런데 왜 성공한 8개 집단엔 한국계가 빠져 있다.

러벤펠드 한국계 미국인은 정말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한국계는 기본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뉜다. 극단적으로 성공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평균 이하다. 평균 소득이 책에서 다룬 8개 집단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추아 한국계 미국인의 학교 성적은 극단적으로 뛰어나다.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엔 한국 학생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명문대 로스쿨과 의대, 줄리아드 음대도 마찬가지다.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낸 헤럴드 고(한국명 고흥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법 전문가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한국계가 많다. 이는 언어 문제일 수도 있다. 아무리 똑똑한 한국계라도 언어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트리플 패키지란 관점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평가하면 어떤가.

추아 한국은 트리플 패키지의 완벽한 사례다. 한국은 수천 년간

일궜은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라는 민족적 정체성, 즉 우월감을 갖고 있다. 반면 과거 외세의 침략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불안감도 겪었다. 또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이다. 그만큼 절제력도 강하다.

—트리플 패키지가 기업이나 국가 차원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추아 스포츠팀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팀은 트리플 패키지를 갖고 있다. 이런 팀은 잠시 슬럼프에 빠졌다가도 금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반면 항상 하위권을 맴도는 팀은 이런 능력이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 직원이 뭉쳐 있다면 그 조직의 성공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책에서 트리플 패키지를 갖춘 인물 중 한 명으로 스티브 잡스를 꼽았는데.

러벤펠드 잡스 역시 트리플 패키지를 가진 집단 출신은 아니다(잡스의 생부는 시리아계 이민자였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거만하다고 할 만큼 자부심이 강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친구들은 그가 항상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고아로 입양됐기 때문에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존경받지 못한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갔다. 또 절제력이란 측면에선 굉장히 원칙이 분명했다.

추아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도 좋은 예다. 그는 항상 “나는 세계 최고”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 봐 항상 불안해했다. 그는 코치가 시킨 대로만 플레이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플레이를 개발했다. 그는 최고가 되려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다. 그만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충동 조절 능력이 강했다. 절제력이 강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처럼 이타적 인물도 트리플 패키지로 설명할 수 있다.

러벤펠드 트리플 패키지는 세속적 성공을 다룬 책이다. 아쉽지만 이타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인류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이다. 인생에는 세속적 성공 말고도 가치 있는 일이 많다. 모든 사람이 트리플 패키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15/2014081501057.html

메시지: 고린도전서 9: 25

이기기를 닦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같이 생각해 보기

-내 절제 점수는 몇 점입니까?(절제를 잘하면 높은 점수 매기기)

영역	점수
스마트폰 사용	1,2,3,4,5,6,7,8,9,10
음식	1,2,3,4,5,6,7,8,9,10
잠	1,2,3,4,5,6,7,8,9,10
분노할 때	1,2,3,4,5,6,7,8,9,10
놀이, 술	1,2,3,4,5,6,7,8,9,10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나눠봅시다.

진행
순서

- 교제 및 삶 나누기 (10분)
- 영화 시청 (60분)
- 나눔 및 적용 (15분)
- 마무리 (5분)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5kkvUKZzw4>

메시지

마태복음 5: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적용 및 나눔

- 평화가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길은?



[영화] 용서 - 김중철 감독